

초강력 태풍 '링링' 광주 피해 240여건

인명사고 0건...간판·가로수 쓰러짐 등 집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광주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가운데 광주의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24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는 무등산에서 순간 최대풍속 33.8%를 기록하는 등 강풍이 불었으나 인명사고나 주택 붕괴 등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태별로 보면 간판이 넘어지거나 흔들림, 파손됐다는 신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로수 쓰러짐은 광주 지산동과 양산동 등 27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

역(옛 망월묘역)에서는 묘지 수호목인 소나무가 쓰러졌다.

남구 양림동에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일부 통신주가 휘어졌다는 등 전신주 관련 신고는 7건이었다.

농작물은 서구 논 0.33ha와 광산구 논 0.39ha 등 2곳에서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호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24건, 주택 지붕이 벗겨지거나 흔들린다는 신고가 5건이었다.

정전 사고는 2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쯤 남구 월성동에서 강풍으로 전선에 문제가 생겨 184가구가 단전됐다.

오전 7시7분쯤에는 북구 오치동의 한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지던



제 13호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지나 북상 중인 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펜스가 강풍에 쓰러져 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 전신주를 건드려 정전이 발생, 424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시는 태풍예비특보가 발효된 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8명이 철야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이용섭 시장은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태풍에 철저하게 대비한 결과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안전에 대비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오월 어머니,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농성 '마감'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천막농성이 10% 일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농성 시작 만 3년만이자 10%일 되는 7일 대정부 투쟁을 중단했다.



추석 앞두고 성묘나선 시민들 추석을 앞둔 8일 인천시 인천가족공원묘지를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9차 전체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옛 전남도청 완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지는 의미로 대정부 투쟁에서 감시와 협력으로 성격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로 그동안 '오월 어머니'를 비롯한 대책위 회원들이 옛 전남도청 완전복원을 통한 역사적인 공간을 지키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대책위는 7일 천막농성을 끝내고 옛 전남도청 별관 4층에 마련된 대책위 사무실을 '복원협의회'와 '대책위'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전남도청 복원에 힘을 보태다.

농성장으로 활용된 공간은 '복원지킴이' 쉽터로 재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대책위와 함께 복원사업과 주요과제를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상영업 놓고 오락가락...발길 돌린 목포 케이블카 관광객

목포해상케이블카가 7일 개통 첫 날 정상营业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탓에 애꿎은 관광객들만 발길을 돌렸다.

목포시와 목포해상케이블카(주)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날 오전 목포 앞바다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6일 오후 2시 북항 승강장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또한 다음날 7일 오전 9시부터 정상营业을 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측은 "케이블카는 풍속이 일정속도(20m/sec)

이상이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 안전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기상여건이 문제가 없는 한 일정대로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보되고 6일 오후부터 제주도부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7일 정상运营은 무리라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급기야 목포해상케이블카는 6일 오후 늦게서야 7일 휴장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날 휴장 사실을 모

르는 관광객과 시민들 상당수는 7일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 갔다.

특히 오후에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바람이 잦아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 발길을 돌렸다.

시민 류모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고 케이블카를 타러 왔다"며 "태풍도 지나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어렵게 시간을 내 왔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영광 한빛원전에 또 드론 출몰...20분 비행

'1급 국가보안시설'인 영광 한빛원전에서 드론이 또다시 출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15분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후문 인근 가마미해수욕장 일대에서 드론이 목격됐다.

드론은 20분 정도 한빛원전 인근 상공을 비행한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수욕장 인근 등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드론의 조종자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8시37분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후문 인근 가마미해수욕장과 계마항 일대에서 드론이 20여분간 비행을 펼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드론 비행 위치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전은 공항, 항만, 청와대청사 등 전쟁 발발시 타격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로 국가보안시설 '가' 급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국가보안시설 '가' 급인 한빛원전은 주변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만큼 드론 조종사를 수색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일 하겠다" 돈만 받고 된 30대 구속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선수를 속여 선용금을 받고 도주한 30대가 구속됐다.

목표해양경찰서는 6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39)를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16일까지 1년여 동안 영광군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수를 속여 22차례에 걸쳐 선용금 8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 43범, 차 훔쳤다가 담배꽂초에 '덜미'

출소 5개월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전과 43범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손님으로 놀러 간 노래방에서 업주의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B씨(68)가 잠든 사이 카운터에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차량 스마트키를 눌러 B씨의 차를 발견해 몰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튿날 길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발견, 차량 블랙박스과 담배꽂초 등을 검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DNA분석과 잠복 수사 등 경찰의 2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로 범행 2개월, 출소 5개월만에 다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지난 4월28일 동중 범죄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만기출소한 A씨는 절도 8범, 실형 8회 등 총 43범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중 파도에 휩쓸린 30대 숨진채 발견

지난 7일 오후 제주 서귀포 중문 색달해변에서 물놀이 중 실종된 30대 남성이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30분쯤 중문 색달해변 하얏트호텔 동쪽 약 100m 해상에서 무엇인가 있다는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실종자 A씨(33)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문 색달해변에서 일행들과 물놀이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